



봄 마중 나온 가마우지 매서운 추위가 가고 평년기온을 되찾아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인 18일 강진군 군동면 탐진강 하구에서 먹이를 기다리던 가마우지 무리가 인기척에 놀라 수면 위를 박차 오르고 있다. /강진=전운재 기자 wjjun@

### 강진, 농가단위 소형저온저장고사업설명회

오늘 120명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요령 교육

강진군은 오늘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금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대상 농업인과 공무원, 시공업체 대표가 함께 모여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업체별 제품 소개와 공개상담을 통해 농업인의 선택 폭을 넓히는 기회로 마련될 계획이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 1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공고를 통해 시공능력, A/S 등이 검증된 8개 전문 시공업체를 심사 확정 발표했으며, 검증된 업체에 한해서 금년도 보조

사업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는 전문 시공이 필요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 농업인들이 한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농산물 수확기 출하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상품성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진=전운재 기자 wjjun@

## '땅끝마을 해남' 어촌체험공원 조성

송지면 대죽리 대섬 일원서 7월 완공 목표...총 사업비 10억 원 투입  
자연환경 관광자원 육성...조개잡기 체험 등 이용객 편의 증진 도모

땅끝마을 신비의 바닷길, 대섬에 어촌 체험공원이 조성된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10억원(국비 60%)을 투입해 송지면 대죽리 대섬 일원에 어촌복합 체험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7월 관광철을 앞두고 개장할 체험공원은 매일 두차례 갈라지는 바닷길에서 조

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섬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낚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바닷가와 해안가를 정비해 모래놀이 공원을 만든다. 또한 아름다운 전망을 배

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캐릭터 조형물 등을 활용한 바다생물 포토존, 놀이시설인 흔들그네 등도 설치해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둘러갈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기존 공중화장실도 리모델링해 쾌적한 공

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선하고 있다. 땅끝관광지 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섬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곳으로, 하루 두 차례 바다가 갈라지며 1km 가량 드러나는 갯벌에서 조개잡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땅끝바다의 아름다운 낙조 등 수려한 바다경관과 함께 해산물이 풍성한 어장으로 지난해에도 5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있는 조개잡이 체험장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완도군이 최근 강진완도축협과 완도자연그대로한우 전문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강진완도축협, 업무협약 체결

자연그대로 한우 전문판매점 2개소 지정 운영

완도군은 최근 강진완도축협과 완도자연그대로한우 전문 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진완도축협 박종필 조합장과 임원진 16명이 참석했으며, 완도자연그대로한우 업무협약서 상호 교환 후 강진완도축협 완도지점과 고금지점에 대한 완도자연그대로한우 전문 판매점 지정서와 인증제 전달식을 가졌다. 완도군의 한우 농가는 총 477개로 그동안 농·수·축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한우를 집중 육성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군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전문 판매점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즐길 수 있는 전문

식당을 지정하는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해양치유산업에 제공되는 모든 식재료를 완도산 농·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치유 효과를 높이고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을 동반성장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이기석 농업축산과장은 "앞으로 완도군의 농·축산물이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에 걸맞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해양치유산업의 성공이 곧 농·축산업의 성공이라는 각오로 역점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진도, 청년정책 협의체 간담회 실시  
주요정책 4개 분야 47개 사업 설명

## 영암,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원 지급 예정

진도군은 지역을 이끌어 갈 진도군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 협의체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진도군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복지 실현 등 국가 주요 시책인 청년정책에 발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공동체 활동 등 '청년이 살고 싶은 행복한 진도'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정책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년정책 협의체 간담회는 2018년도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청년현황, 실태분석과 함께 올해 시행하는 청년발전 주요정책 관련 사업 4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한길준 기자 gjhan@

영암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2019년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취업자와 지역 기업 양쪽에 각각 장려금을 지원해 청년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으로, 전남도와 영암군이 2010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1년차에 취업장려금으로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이 3개월간 나눠 지급,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으로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이 매분기 나눠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4년차 지원금이 신설돼 장기근속금으로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취업자 1명당 당초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참여대상기업의 경우 영암군내 소재하

고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며 청년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은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직장 및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으며 참여신청은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영암군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싹틔줄  
생강을 살리시다